

조기경보레이더 탐지→패트리엇으로 요격

■ '한국형 MD 체계' 어떻게 운영되나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구축키로 한 것은 사실상 '한국형 미사일방어(MD)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북한이 최근 단·중·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계속 보강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실제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MD체계 어떻게 운영되나=한국형 MD체계는 2012년까지 구축될 AMD-Cell과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이 핵심 요소다.

내년께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조기경보 레이더로 수집된 북한 미사일 동향을 AMD-Cell에서 분석, 위협 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공군 방공포부대로 요격 명령을 하달하는 체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즉 최대 사거리가 160km에 이르는 KN-01과 KN-02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사정 300~500km), 노동(사정 1천km), 대포동 2호(4천300~6천km) 미사일의 발사 움직임을 조기경보 레이더로 탐지하고 실제 발사했을 때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48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도입된다. 또 2011년까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일명 '철매-II')의 성능을 개량해 탄도탄 요격 미



사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미사일 동향은 기본적으로 조기경보 레이더를 통해 탐지되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가 도입되는 공중조기경보기(AEWS : 일명 피스아이)와 이지스 구축함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해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로 보내게 된다. 공중조기경보기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해 공중, 해상, 지상으로 침투하는 적의 어떤 항공기와 함정도 탐

지할 수 있다.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AN/SPY-1D(V) 레이더는 최대 1천km 밖에서 음속의 8배의 속력으로 비행하는 1천여개 물체를 한꺼번에 추적할 수 있다. 이 레이더는 육지의 지형이나 공중 기상상태, 새떼 비행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공기나 미사일의 탐지가 가능하다.

◇탐지거리 400~1천km 조기경보 레이더 확보=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의 핵심 장비인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가 미사일 동향을 탐지하게 된다.

우리 군은 탐지거리 400~1천km의 레이더를 해외에서 구매할 계획인데 미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제품이 대상이다.

미국의 X-밴드 레이더(FBX)와 이스라엘 그린파인(Green Pine)의 최대 탐지거리는 각각 1천km, 500km에 이른다. 프랑스의 M3R레이더는 300km이다. 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이들 레이더 가운데 성능은 미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은 이스라엘 장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기경보 레이더는 탄도유도탄 발사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해 비행방향과, 탄착지점, 비행위치 등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제품은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들 레이더 가운데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한 탐지거리와 요격체계의 연동성 등을 고려해 구매국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인도 고속열차 탈선...15명 사망 150여명 부상
고속열차가 탈선해 최소한 15명이 숨지고 150명이 부상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 동부도시 오리사주 부바네스와르 북쪽 120km 떨어진 자이푸르에서 고속열차가 탈선해 최소한 15명이 숨지고 150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자동차 지원책은 보호주의”

EU국가들 비난...르노-볼보는 5억유로 거부

파리=정상필 특파원

프랑스 정부가 자금난에 처한 대국 자동차 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지원금을 내놓기로 한 것과 관련,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에 공장을 둔 르노 트럭의 소유사 볼보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금을 아예 거부했는가 하면, 독일과 유럽연합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체코는 프랑스의 정책이 보호주의를 부추킨다며 적의를 드러냈다.

스웨덴 자동차 업체인 볼보의 마르텐 빅소스 대변인은 최근 AFP 통신을 통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르노 트럭을 위해 제안받은 5

억 유로의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금은 현재 금리의 절반 수준인 연 6%에 불과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앞으로 ▲5년 간 프랑스 내 공장 폐쇄 금지 ▲올해 노동자 해고 최대한 자제 등이 지원의 조건으로 제시됐다.

볼보 측은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거쳤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5억 유로를 제안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협상 내용과 프랑스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세계 2위 중형 트럭 업체인 볼보는 경제위기 이후 판매의 22%, 주문

의 82%가 감소했고 5천800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1년 볼보로 넘어간 르노 트럭에는 1만4천여명이 근무 중이며 대부분 프랑스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나단 토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론을 통해 접한 (프랑스 정부의) 구체적인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며 “프랑스 정부에 구체적인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독일 정부 관계자도 “우리(독일)는 그 누구도 경쟁에서 특권의 혜택을 입어선 안 된다고 확신한다”며 “유럽연합 규정에 어긋나는 어떠한 기준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amus@kwangju.co.kr

“北, 핵 포기땀 관계 정상화 용의”

표 순방 앞둔 힐러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중단 등 거듭 촉구

16일부터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과 관련해서는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경고했으며 북한의 고농

축우라늄(HEU) 생산 정보가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클린턴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인 한·중·일·인도네시아 등 4개국 방문을 앞두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 아시아사이어티에서 연설과 뒤이은 콘퍼런스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

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첨예한 위협을 북한 핵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해 한국 등 회담 참가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지지하며 나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킬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석합격

의中 100% 9급문제풀이반

수업기간 11월 10일 ~ 12월 10일

한빛고시학원

주최: 02-261-1221

스피치 리더십

교육의 위대한 힘

<p>1. 발표의 중요성</p> <p>2. 발표의 종류</p> <p>3. 발표의 준비</p> <p>4. 발표의 실습</p> <p>5. 발표의 피드백</p>	<p>6. 발표의 전략</p> <p>7. 발표의 실용</p> <p>8. 발표의 심리</p> <p>9. 발표의 연습</p> <p>10. 발표의 마무리</p>	<p>11. 발표의 평가</p> <p>12. 발표의 발전</p> <p>13. 발표의 성공</p> <p>14. 발표의 기쁨</p> <p>15. 발표의 영광</p>
--	--	---

02-000-226-1221, 02-000-441-0000

마실수록 가벼워지는 수소수!

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자!

수소수 100% 활성산소를 없애는 수소수

수소수 100% 활성산소를 없애는 수소수

수소수 100% 활성산소를 없애는 수소수

수소수 100% 활성산소를 없애는 수소수

02-000-226-1221, 02-000-441-0000